

# “전남권 대학병원 2곳 설립시 적자 보전할 것”

### 김지사,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 “도공모 법적 근거 충분” 순천지역 전남도의원들 철 지난 ‘공동의대’ 재요구 빈축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대학병원이 (동부권 과 서부권) 2곳에 설립되면 적자가 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자를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권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통해 “전남에 의대가 들어서면 주민 건강권 최후의 보루가 된다. 도민 건강권과 도내 의료체계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당초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공동)의대를 검토했지만 교직원들의 반발과 현실성 등을 고려해 단독의대로 선회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민생토론회 언급과 정부 담화문, 최근 관련 부처 장관들의 답변을 토대로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또 “공모를 통해 의대 설립 대학을 결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의대 선정을 정부에 일임할 경우 전

남권 국립의대 신설이 표류할 수 있다”며 공모 추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순천 지역구 일부 전남도의원들이 이날 공동의대 방식을 다시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신민호·서동욱·정영균·김정희·한춘옥·김진남 도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지역 도의원 일동 명의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도민 상생 화합 촉구’ 성명을 통해 목포대·순천대에 공동의대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6명의 도의원은 모두 최근 순천대에 전남도 공모 참여를 촉구하며 기존 순천 단독 유지 입장을 번복한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전남도 주관 공모에 찬성한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공동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공동의대야말로 지역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순천 지역구 도의원들이 요구한 공동의대는 정부가 난색을 표명한 데다, 현실성이 떨어져 전남도가 이미 폐기한 방안이다. 대신 의대



4일 오전 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설립 대학 정부 추천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동의대는 공모 자체가 불필요한 만큼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도의원들의 주장은 현실성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

온다. 이 때문에 김문수 의원의 입장 선회 이후 약화된 순천지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여전히 전남도 공모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권향협(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지역구 소속인 김정이·한숙경 도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재정 기자

## 광주시의원들, 5분 발언서 시정 운영 질타 쏟아냈다

광주시의원들이 4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광주시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은 이날 “글로벌대학30 사업에서 전남대가 2년 연속 탈락한 원인이 정부 핵심 정책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는 광주시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대학의 핵심 목표는 지역특성화 산업을 기반으로 대학 교육이 협력해 청년

예산 확보나 행정 절차 이행 등이 이유로 ‘일시 정지 상태’이거나 ‘설계마저 중단된 사업’의 건수가 24건, 약 41%에 달한다”며 “기획과 실행을 따로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기획은 주무 부서에서 하고 실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다 보니 애초부터 사업 기획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되면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심지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기 “글로벌대학 2년 연속 실패 시 무책임”  
강수훈 “종합건설본부 해체 수준 대개혁 필요”  
명진 “광천권역 교통대란 대책 조속 마련해야”

명진 의원(민주당·서구2)은 교통 혼잡 지역인 광천동 일대는 복합소방물 2개소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고 주변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대책에 대한 추측만 무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광천권역 교통대란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피해는 볼 뻔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근본 대책으로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을 구현해 보행 친화적인 토지 이용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 완성 ▲선도적인 공법과 혁신적인 교통 기술을 도입해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것 ▲철저한 교통 수용 관리 정책을 도입하고 대규모 개발 계획과 연계해 신규 우회도로 개설·확장 등을 제안했다. /박성경 기자

## 민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장세일 선출

장현 후보는 민주당 탈당 후 조국혁신당 입당

10·16 영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장세일 전 전남도의회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경선을 거쳐 장세일(0) 전 도의원을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영광군수 후보 경선은 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 50%+관리당원 여론조사 50%로 치러졌다.

장 전 도의원은 3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당초 예비후보 6명이 참여한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경선의 경우 최고위원회에서 2명을 컷오프

해 4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기로 했으나 장현 후보가 사퇴해 3명(이동권 전 도의원, 장세일 전 도의원, 장기소 영광군의원)으로 치러졌다.

경선 불참을 선언한 장현 후보는 4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집중 지원에 나선 조국혁신당은 전 당원을 대상으로 경선 후보자 신청을 받고 있다.

10·16 재선거는 오는 26·27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0월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영광=김동규 기자

은복수산 명절선물 세트

광주매일신문이 광주·전남 지역 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여수 복멸치 세트 추천**

- 1호 여수복멸치 심심 2중 Aset 31,000원  
소멸치 500g, 중멸치 500g
- 2호 여수복멸치 심심 2중 Bset 30,000원  
소멸치 500g, 무조미 구운김 30장
- 3호 여수복멸치 심심 3중 set 31,000원  
소멸치, 중멸치, 대멸치 각 330g
- 4호 여수복멸치 4중 set 37,000원  
지리멸치, 소멸치, 중멸치, 대멸치 각 280g
- 5호 여수복멸치 심심 8중 Aset 42,000원  
지리멸치 150g\*2, 소멸치 150g\*2, 중멸치 150g\*2, 대멸치 150g\*2 or 디포리 140g\*1
- 6호 여수복멸치 심심 8중 Bset 47,000원  
지리멸치, 소멸치, 중멸치, 대멸치 각 150g, 디포리 140g, 황태재100g, 국산꽃새우80g, 물메기재120g
- 7호 여수복멸치 심심 대용량 2중 set 33,000원  
지리멸치, 대멸치 각 600g
- 8호 여수복멸치 심심 대용량 3중 set 48,000원  
소멸치, 중멸치, 대멸치 각 600g씩

은복수산에서 추천하는 선물 세트로 더 풍성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보내세요!

**은복수산** 전남 여주시 소리면 죽림중앙로 7-25 **010-2634-1344**